



KIA 나성범



kt 소형준



삼성 김지찬



KIA 정해영



한화 최재훈

### “첫사랑이자 끝사랑” 신광훈 포항과 재계약

1987년생 베테랑 수비수 신광훈(사진)이 새해에도 K리그 포항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 뛰겠다. 포항은 1일 “신광훈과 재계약해 2025년에도 함께한다”고 발표했다.

신광훈은 포항 유스(포항제철중, 포철공고) 출신으로 2006년 고교 졸업과 동시에 포항에 입단해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이적과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도 무려 13시즌 동안 포항에서 뛰 자타공인 ‘포항맨’이다.

신광훈은 팀 내 최고 선임임에도 2024시즌 28경기를 소화했고 코리아컵 우승에도 큰 힘을 보탰다.

지난해까지 K리그1 397경기를 뒀신 신광훈은 이번 재계약으로 포항에서 K리그1 400번째 경기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 경기만 더 뛰면 포항 소속 선수 K리그1 출전 순위에서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는 포철고 황지수 감독과 함께 270경기로 공동 2위다.

신광훈은 구단을 통해 “포항은 내게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다. 이번 계약으로 내 프로 인생의 처음과 끝은 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뱀 허물 벗듯... 올해는 도약의 해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다. 프로야구엔 뱀처럼 허물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수들이 많다. 특히 1989년과 2001년에 태어난 ‘뱀띠’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나성범(KIA 타이거즈)과 최재훈(한화 이글스), 정해영(KIA), 김지찬(삼성 라이온즈), 소형준(kt wiz) 5명의 뱀띠 선수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남다른 새해 소망과 목표를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202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디펜딩챔피언 주장 나성범 “새해 소망은 세 번째 우승 반지”

나성범이 뱀띠 해를 맞는 건 프로 데뷔 후 두 번째다. 그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야구 1군 무대에 데뷔했다.

막내 구단의 간판선수로 활약

### 프로야구 뱀띠 스타 5인방 각오

KIA 나성범 “세 번째 우승 반지”

kt 소형준 “풀타임 선발 될 것”

삼성 김지찬 “한국시리즈 간다”

KIA 정해영 “블론세이브 제로”

한화 최재훈 “포스트 시즌 사수”

했던 나성범은 12년이 흐른 2025년, 호랑이 군단의 리더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2024년엔 팀 후배 김도영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라며 “도영이와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소형준 “새해엔 선발 로테이션 빠지지 않겠다”

2001년 9월 16일생인 kt 토종 에이스 소

형준은 ‘건강한 몸으로 풀타임 출전하기’를 새해 목표로 잡았다.

그는 “2024년엔 수월 여파로 내 역할을 다 못 했다”고 돌아본 뒤 “2025년엔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고 싶다”고 목표를 소개했다.

소형준은 2023년 5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해 시즌 아웃됐고, 2024년엔 정규 시즌에서 6경기 출전에 그쳤다.

2년 연속 선발 로테이션에서 힘을 보태지 못했던 소형준은 2025년을 재기의 해로 삼고 맹훈련 중이다. 그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를 마친 뒤 쉬지 않고 바로 훈련을 시작했다”며 “현재 근력 훈련을 주로 하고 있고, 1월 중순 개인 훈련 차 출국한다”고 전했다.

커리어하이 시즌에도 아쉬움 삼킨 김지찬 “마지막에 웃을 것”

2001년 3월 8일생인 삼성 외야수 김지찬

은 2024시즌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정규시즌 1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6, 102득점을 올리고 42도루에 성공했다. 2020시즌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성적이다.

김지찬은 2024시즌 많은 일을 겪었다. 개막 전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했고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했다. 그러나 빠른 발을 이용한 넓은 수비 범위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수비 부담을 덜어낸 김지찬은 타격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냈다. 마지막은 아쉬웠다. 김지찬은 KIA와 한국시리즈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KIA 우승 헝가레 투수 정해영 ‘블론세이브 제로’ 도전

한국시리즈 우승의 순간에 마지막 공을 던진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도 뱀띠다.

2001년 8월 23일생인 정해영은 새해 목표를 묻는 말에 “세이브 숫자보다 블론 세이브 없애는 것을 목표이자 도전 과제로

삼았다”며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해영은 2024시즌 2승 3패, 1홀드, 31세이브, 평균자책점 2.49의 성적을 올리며 우승에 앞장섰다. 삼성과 한국시리즈에서도 3경기에 출전해 뒀문을 확실하게 막았다.

류현진과 함께 겨울 바다 입수한 최재훈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않을 것”

1989년 8월 27일생 한화의 안방마님 최재훈은 새해 소망을 묻자 최근 팀 동료들과 함께한 ‘겨울 바다 입수’를 떠올렸다. 그는 “새해엔 좋은 개인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트시즌 진출이 훨씬 중요하다”며 “바다에 입수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재훈은 지난달 11일 류현진, 장민재, 채은성 등 포래 고참 선수들과 함께 서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 지난해 KBO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공약 때문이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최정 “내 성적 나쁘지 않은데... 3루수 후배들 너무 잘 해”

최정(37·SSG 랜더스·사진)은 2023년과 2024년, 2시즌 연속 3루수 골든글러브를 다른 팀 후배에게 내줬다.

2023년에는 홈런 1위 노시환(23·한화 이글스), 2024년에는 최연소 30홈런·30도루 기록을 세운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이

황금장갑을 품에 안았다.

최정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젊은 스타가 등장하는 건 한국 야구를 위해 무척 좋은 일이다. 맞대결하지 않을 때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배 타자들을 지켜봤다”고 말하면서도 “내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3루

에서 좋은 타자들이 나온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담 뒤에는 다짐이 이어졌다. 최정은 “후배들이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김도영, 노시환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며 “다시 골든글러브를 뒀 Хот으려면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단기간 기록’을 보면 최정은 2023년과 2024년 ‘3루수 부문 2위’였다.

최정은 2023년 타율 0.297, 29홈런, 87타점, 2024년에는 타율 0.291, 37홈런, 107타점을 올렸다. 빼어난 성적이었지만, 2023년 홈런과 타점 1위를 차지한 노시환, 2024년

정규시즌 정규시즌(MVP)에 오를 정도로 맹활약한 김도영의 성적표가 더 빛났다.

최정은 “후배들이 정말 잘하더라. 인상적이었다”라고 웃었다. 후배들을 예우하면서도 최정은 다시 3루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최정은 8개의 3루수 황금장갑을 수집했다. 한 차례 더 골든글러브를 받으면 한대화 전 한화 감독(8회 수상)을 넘어 3루수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자로 기록된다.